한·우즈베키스탄 경제인 초청 오찬 연설

안녕하십니까?

이처럼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지모프 대외경제청장과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리를 함께해 주신 카리모프 대통령 각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카리모프 대통령 각하와는 어제 몇 개의 일정을 함께했는데, 그때 제 느낌은 따뜻한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따뜻함을 넘어서 뜨거운 분인 것 같습니다.

양국 관계에 아무런 갈등이나 장애사유가 없습니다만, 혹시 경제협력을 하다 보면 더러더러 장애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카리모프 대통령 각하의 뜨거운 열정으로 다 녹여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이곳 타슈켄트에 도착해서 거리에 있는 우리 광고물과 자동차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반가움을 너머서 우리 기업과 상품을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우즈베키스탄 국민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즈베키스탄은 친숙한 나라입니다. 수교한 지 13년에 불과하지만 1,300여 년 전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살고 있는 20여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리모프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는 정치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보다 더 소상하게 알고 계시고 많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우의에 비해 실질 경제협력은 아직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두 나라 간 교류·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건도 갖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줄어들던 교역규모가 2003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에는 34%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1만여 명의 이곳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수출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그중에서도 석유·천연가스·광물 개발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에 관해서는 오늘 오전 여러분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제 서명한 자원협력약정과 앞으로 설치될 자원협력위원회가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우리는 모범적인 협력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고 어느 나라보다 앞서 전자정부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중앙아시아의 정보통신 발전을 선도하면서 초고속 통신 인프라와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보다 더 긴밀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섬유기술협력약정, 그리고 민간경제공동위원회 설립 등이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은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신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관문에 위치한 우리도 이 지역의 금융·물류·R&D 허브 도약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이 서로 결합된다면 상대방에게 동북아와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동서로 연결하며 세계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

지금까지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그것을 꿰는 것은 결국 기업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중소기업인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저는 한·우즈베키스탄 협력에 있어 중소기업인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인 여러분, 한국의 기업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주먹 하나로 성공을 일구어 낸 가

장 최근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의 기업들에 비해 훨씬 더 도전적이고 기술과 노하우를 나누어 가지는 데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기업은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특별히 소개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야말로 바로 이와 같은 단단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이번 방문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오전 대화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에 남은 대화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기업인 여러분이 이곳 우즈베키스탄에서, 또 한국에서 서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